

18

깨어진 십계명

출 32~34장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57장 (시편 131편)



1.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2.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압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 32:15~16)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촘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출 32:19)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16)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shall be justified. (Ga 2:16)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간추려서 적어 봅시다(출 20:3~17).

1
2
3
4
5

6
7
8
9
10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깨어진 십계명과 관련지어 적어 봅시다(출 32:17~19, 롬 3:19~20).

3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율법과 은혜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적어 봅시다.

구분	율법	은혜
요 1:17		
갈 2:16		
롬 10:3~4		

4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롬 13:10).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① 하나님께 대한 사랑
- ②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 ③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1

요 1:17

2

롬 3:19

3

롬 3:20

↑

롬 3:22

↓

갈 3:11

↓

갈 5:4

↓

약 2:10



빈자리가 없으면...

알콜 중독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윈도우에 진열된 술병들을 보았을 때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반대편 윈도우에 간판 글씨를 보게되었습니다. “25센트만 내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우유” 즉시 그 우유 상점에 뛰어 들어가 우유를 양껏 마셨습니다.

그가 우유 상점을 나와 술집을 지나칠 때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실컷 마셨기 때문에 술이 따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세상의 것들이 마음과 생활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음과 삶에 빈자리가 없도록 해서 사탄이 그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질문 있어요~



교회는 다 똑같지 않나요?

물론 교회(에클레시아)는 하나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처음 만나더라도 한 가족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어떤 교회당을 나가도 다 같은 것 아니냐는 내용인 듯싶습니다. 만약 교회당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절대 똑같지 않다’입니다.

출석할 교회당을 선택할 때의 중요한 기준은 그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즉 성령이 역사하여 복음이 증거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기보다는 ‘만세 전부터 택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니까 나올 때부터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여 어떻게든 신자를 붙잡는 일에 급급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영혼의 구원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육신적인 복이나 사회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아, 신자 중 아무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곳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부터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교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잃어진 영혼이 그곳에 다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없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데 성도가 생명이 없는 곳에 거한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일단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혹 구원받기 전까지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곳은 반드시 분별하여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